

■ 지방선거 핫코너

광주시장 후보 5명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공조”

민주당 정동채, 진보신당 윤남실, 민주노동당 장원섭, 국민참여당 이병완, 무소속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은 25일 “교육중심도시 광주를 교육복지 완성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정책 공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들을 위해 광주시와 시교육청, 각 기초자치단체, 시·구의회,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광주교육복지실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중심도시 광주를 교육복지 완성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협력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육정책은 이념과 시장논리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평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광주시와 시교육청, 각 기초자치단체, 시·구의회,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광주교육복지실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20여명 내일 순천 방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순천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5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상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홍준표 전 원내대표, 정두언·박진·나경원·전여옥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20여명이 27일 한나라당 김대식 전남지사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참석차 순천을 방문한다.

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김 후보가 당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 한나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출마 직전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김 후보는 “경소 친분 있는 국회의원 25명 가량이 전남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 경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호 광주 서구 교육의원 출마

김선호 전 효광중학교장은 지난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교육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주서구 교육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교장은 “전교조 출신 첫 중등학교 교장이라는 사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비리를 근절시키는데 앞장서 왔다”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일선의 과거사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격문을 보내는 등 교육적 양심으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덕렬 “광산교육청 신설해야”

오덕렬 광주시 교육의원 예비후보(광산구)는 25일 “광산권역을 관할하는 광산교육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현재 광산권역 내에 초등 42개교, 중등 23개교, 고등 15개교에 특목고 2개교 등 모두 82개 학교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교육청이 없어 교육여건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광산교육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광산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를 거듭해 50만 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청이 없다는 것은 광산구 교육현실을 외면한 교육행정의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이탁우 내일 선거사무소 개소

이탁우 보성군수 예비후보는 27일 오후 3시 보성군 보성읍 매일 시장 앞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보성의 미래는 보성군민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나란히 나아가야 가능하다”며 “항상 군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활력이 넘치고 희망찬 보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할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보성군의회 제2·3대 의원, 제3대 의장, 전라남도의회 제7·8대 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전남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석재 “해남군수 무소속 출마”

이석재 민주당 해남군수 예비후보는 25일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민주당을 탈당하며 해남군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뚜렷한 공천 원칙이 민주당의 모습이었다면, 먼저 당과 당원의 선택을 기다렸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당의 모습에 안타까웠다”면서 탈당 배경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또 “이제 군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준비하며, 오랜 시간 준비해온 정책들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펼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남구청장 경선 후보 3명 확정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5일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적용하는 광주 남구청장 후보에 김영집 전 노무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정재훈 동아병원장, 최영호 전 강릉대 의원 보좌관 등 3명을 확정, 발표했다. 애초 9명의 후보가 공천 등록을 했지만, 공심위는 1차 면접에서 5명의 후보로 압축한 뒤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3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5일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적용하는 광주 남구청장 후보에 김영집 전 노무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정재훈 동아병원장, 최영호 전 강릉대 의원 보좌관 등 3명을 확정, 발표했다. 애초 9명의 후보가 공천 등록을 했지만, 공심위는 1차 면접에서 5명의 후보로 압축한 뒤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3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기독교교단協 “시민배심원제 철회해야”

광주시기독교 교단협의회(상임교단 방철호 목사)는 25일 “민주당이 광주시장과 남구청장 경선에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혁공천이라 미명 아래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국민통합에 어긋나는 시민배심원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단협의회는 “광주시민이 뽑아야 할 단체장 후보를 서을 사람들이 내려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지경·최원일·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박희석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시 올 41억 들여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양곡 50% 할인 공급

매월 15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

광주시가 올해 41억1천100만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2만1천14가구와 차상위 복지수급자 3천720가구 등 모두 2만4천734가구의 저소득층 가정에 정부양곡 가격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양곡은 지난해 생산한 정부수매 벼를 도정한 일반미이며, 20kg 기준 1포대 가격은 3만8천650원으로, 저소득 가정에서는 이를 1만9천300원에 공급받을 수 있다. 1가구당 구입 상한은 1인당 매달 10kg이며, 5인 이상 가족이라도 1가구당 매달 20kg 기준 2

포대로 제한했다. 할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차상위 장애인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 ▲저소득 보육료지원대상자 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매달 15일까지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정부양곡 구입을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배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정부양곡 구입을 신청한 수급자의 거주지로 택배회사가 직접 배달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예술의 거리-개미시장, 대인시장-공공예술

표문화전당 주변 예술특구로 조성

광주시 내달 19일까지 사업공모

광주시가 옛 전남도청에 건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시아문화예술특구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25일 “전당 주변 중 우선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금남지하상가 2공구 등을 문화예술의 생산·유통·소비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광주시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문화예술단체,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공모한다. 예술의 거리는 개미시장, 대인시장은 공공예술, 금남지하상가 2공구는 소규모 전시 및 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를 선정할 뒤 내년 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당과 그 주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사업 결과를 평가해 확산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악신도시에 독립도서관 ‘첫 삽’

전남도 198억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전남도는 26일 무안 남악신도시 근린공원에서 독립도서관 건립 기공식을 갖는다. 독립도서관은 2만7천610㎡ 부지에 1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011년 6월 완공된다. <조감도>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으로 세워지는 독립도서관은 태양광시스템과 자연채광시스템, 빗물 이용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또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디지털, 영상자료관 등이 들어서며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갤러리와 세미나실 등도 갖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독립도서관이 완공되



면 도내 286개 도서관(공공도서관 52·작은도서관·문고 234)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내 도서관 운영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광주대학교) featuring a stylized tree graphic and text about the university's history and achievements. The text includes '광주대학교 100주년 기념' and '1949년 설립'.